

창립 50주년 맞아 '플라스틱산업의 날' 제정 석유화학산업과의 상생 통한 동반성장에 주력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달 17일 제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봉현 회장은 연합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소감과 함께 플라스틱산업의 날 제정 의의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뿌리산업으로서의 플라스틱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 15대(연합회 2대) 회장직으로 취임한 후, 2008년 16대에 이어 2012년 17대(연합회 4대) 회장직으로 연임된 조봉현 회장은 재임 중 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우리 연합회 50주년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 역사입니다. 저의 재임기간 중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 회장이 취임한 후,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자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들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연합회의 역할도 흔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자생력을 갖고 홀로서기에 주력, 그 결과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의 규모가 축소된 것과 달리, 연합회는 현재 예산 및 규모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여러 조합 및 연합회가

벤처마킹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시작이 산업화의 시작’인 것과 같이 “플라스틱은 메탈, 세라믹과 함께 3대 소재 중 하나로 가공성, 경량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플라스틱생산액은 총 40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사업체수는 12,210개이고 종사자 수도 17만3천명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식품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제품의 부품형태로 사용되면서 수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지대한 것이 사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편익 창출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녹색성장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6일, 제조업의 근간이자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뿌리산업 대상 업종은 철강·금속만 지정되어 있고 플라스틱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

조 회장은 “플라스틱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합회는 플라스틱을 뿌리산업 대상 업종에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플라스틱연합회는 특히 국가산업 발전과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플라스틱산업계를 위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매년 11월 1일을 플라스틱산업의 날로 제정, 올해 제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행사를 열게 됐다.

이번 제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플라스틱산업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유공자 포상을 계획, 현재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장관 등 기관포장은 총 20개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될 때 플라스틱산업도 태동했다고 강조하는 조봉현 회장. 196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성장하면서 40여개사에 불과했던 플라스틱제조업체가 250여개로 늘어났고, 지금은 1만2천개가 넘는 정도로 크게 성장한 만큼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조봉현 회장은 이러한 플라스틱 업계가 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특히 그는 ‘화학’과 ‘플라스틱’을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하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우리는 화학과 플라스틱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제품 뿐 아니라 원재료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

리 연합회는 플라스틱의 종갓집으로서 '화학산업대전' 등에 대내외 플라스틱제조업체 분들이 많이 참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제38회 극동플라스틱업계컨퍼런스를 화학산업대전이 열리는 기간에(11. 1~2)에 맞춰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석유화학협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조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플라스틱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양 산업간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은 순환이용이 가능한 유가자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합회 역시 2007년부터 환경부장관과 PE관, PE영농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을 이행 중이며 제로 2011년까지 총 498,000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504,000톤의 온실가스(CO₂)를 감축, 올해는 플라스틱 생활용품(18종)을 자발적 협약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 외에도 연합회는 플라스틱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수입 원료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원료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안정에 주력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플라스틱시험원에서는 플라스틱표준을 제정하여 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업무를 통해 업계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등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합회는 플라스틱산업의 발전과 회원조합 및 회원조합원사의 경영지원 등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연합회는 전신인 프라스틱조합 때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 수출목표가 1억불 때 수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 50년이 플라스틱 산업의 태동기이자 거침없는 발전을 해온 성장기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50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화학과 플라스틱이 상생하며 공존 발전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조 회장은 “우리 플라스틱산업계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용제품에 안주하지 말고, 친환경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플라스틱산업계가 일본, 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강국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산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다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